

환경과 현대미술의 접점

담양국제예술축제 12일부터 관방제림 일대서 페이스북 공모 국내의 작가 10명 설치작 선포

담양의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미술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담양문화재단은 오는 12일부터 '2019 담양국제예술축제'를 개최한다. 관방제림부터 담빛예술고까지 설치작품과 조각품을 배치해 누구나 자연스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다.

담양국제예술축제는 페이스북 공모를 통해 작가를 선정했다. 세계 30개국 51명의 작가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그 중 선정된 10명의 설치작품 10점이 전시될 계획으로, 현재 설치작업이 진행중이다. 11일까지 작품 설치를 마치고 12일 오후 4시 오픈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작품들은 전시 후 영구설치돼 담양의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관방제림, 영산강 등 '자연'의 이미지와 어울릴 전망이다.

참여 작가는 Bar From(이스라엘), Eli Blasko(미국), Irene Anton(독일), Marc Limousin(프랑스), Mariya Haponenko(캐나다), Martin Renteria(멕시코), Meeson Pae Yang(미국), Rajesh Thachan(인도), 그리고 한국 작가 김치준과 이수연이다.

담양문화재단은 선정 작가에게 양복향



마크 리무장(왼쪽)과 마리아 하포넨코 작가.

공권과 21일간의 레지던시를 제공한다. 참여 작가인 프랑스의 마크 리무장(78)은 "한국에 와서 새로운 문화경험을 하고 있다. 한국의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현대와 잘 어울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나 또한 프랑스의 문화가 담긴 예술을 한국에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연을 주제로 페인팅, 사진, 영상, 설치, 세라믹 등 다양한 작업을 해 온 그는 이번 축제에서 관방제림에 조명을 띄우는 미디어아트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페이스북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의 10명의 설치작가 작품 10점이 담양국제예술축제 기간 관방제림 일대에 전시될 계획이다. 설치작업이 한창인 작가들의 작업 모습.

캐나다 작가 마리아 하포넨코(28)는 "3년 전 영화세트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섞어 이번 작업에 임하고 있다"며 "대나무를 잘라 식물을 심고 건축형태의 조형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속도에 치인 요즘 시대에 태양빛을 받으며 쉴 수 있고, 현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 에코환경이 뛰어난 담양에 꼭 맞는 작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가들이 이번 축제에 내는 모든 작품은 담양에서 나는 친환경적인 자연재

료를 사용한다. 자연을 파괴하고 또한 복구하는 현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고찰의 의미를 담았다.

다양한 문화에서 온 다양한 작가들이 자연재료에 접근하는 태도와 다양한 기법이 기대된다.

장현우 예술감독은 "이번 축제에 주제가 설정하지 않았다. 자연의 감성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 축제의 의도다"고 밝혔다.

담양국제예술축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연수 기자



광주과학관 '우주 사진전'

대한민국 우주개발 결정적 장면 38점 구성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달 착륙 50주년 기념 특별전 : 우주로의 도전(이하 우주 특별전)'을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 우주 사진전' 전시물을 보강했다.

우주 사진전은 나로호와 아리랑 위성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결정적인 장면과 아름답고 경이로운 위성사진 등 38점으로 구성됐다. 우주 사진전은 우주 특별전 입구 공간에 마련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며 대한민국 우주 과학기술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 우주 특별전에서는 지구, 달, 화성 3개의 전시공

간에서 다양한 우주 체험을 만날 수 있다.

지구 존은 '우주로 가기위한 인류의 노력'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우주 탐사기술을 다룬다.

특히 두 번째 달 존에서는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체험형 전시가 눈길을 끈다. 달 표면 클라이밍, 무중력 체험, 우주인 훈련, AR로 보는 우주 등 이색적인 우주체험을 할 수 있다.

화성 존에서는 인간의 화성 거주 프로젝트인 '테라포밍'과 관련한 다양한 과학기술 원리와 화성탐사 로봇 등을 학습할 수 있다.

관람료 5,000원. /이보람 기자

광주서 만나는 인도 전통예술

내일 전통문화관에서 바라타나티암 무용 1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가르나틱 음악

광주문화재단은 전통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일 전통문화관에서 인도 고전무용 공연을, 1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인도 고전음악 연주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먼저 9일 오후 4시 30분에는 타밀나두 지역에서 유래된 인도 고전무용인 '바라타나티암 무용'이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열린다. 인도 문화교류위원회가 선정한 카필 샤프라마와 네 명의 촉망받는 무

용수의 무대, 그리고 우리에게 생소한 악기인 트리랑감, 나루반감, 탄푸라 등 인도 전통악기 연주를 통해 이국적인 남인도 문화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10일 오후 5시에는 인도 고전음악인 '가르나틱 음악'으로 서양의 바이올린과 인도 고전악기가 어우러지는 앙상블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메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슈리다



인도 고전 무용인 '바라타나티암'

르 라후나단은 인도 정부의 수상 경력을 치고 있는 인도 정상급 예술가다. 물론,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도 정상급 예술가다. 문의 062-670-7465. /이보람 기자

광주 월산동 달피마을 스토리 공모전

달작가&달짓기 모집

광주 남구 월산동 달피마을에서는 마을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의 문화 욕구를 해소해주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동문화재단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단은 변화하는 마을 정서를 기록하고 마을에 남겨진 자원을 보다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달피마을 스토리 공모전 달작가&달짓기'를 추진한다.

먼저 '달피마을 스토리 공모전 달작가'는 마을작가 공모전으로 공모주제는 월산동 달피마을의 자원(역사, 인물, 자원 등)을 소재로 한 마을 스토리다. 참가 접수는 스토리 기획안과 자기소개

서로 이뤄지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달피마을작가로 선정되면 스토리를 제작하는 활동비를 지원한다. 최종 작품은 월산동의 스토리가 담긴 소설, 시, 에세이, 동화 등을 결과물로 제출해야 한다.

'달피마을 스토리 공모전 달짓기'는 월산동 및 광주 주민을 대상으로 '월산'에 어울리는 글귀를 공모하는 백일장 형태로 진행된다.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들은 달 작가와 함께 달피작가로 임명되며 소정의 참가 기념품과 발간된 마을책자를 제공한다.

지원방법은 이메일 및 현장방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동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daedongc.com>) 접속 후 확인 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투자 가치 좋은 경매 물건 추천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개(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月) (10:00)

2018타경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712,816,000원
토지면적	19835㎡(6000.088평)	최저가	(70%) 1,198,971,000원
건물면적		보충금	(10%) 119,900,000원
매각물건	토지 매각	소유자	유한회사리치산업
개시결정	2018-11-19	채무자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사전평	임의경매	채권자	김현성외1
관련사건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매각토지 건물현황 (감정원 : 인산감정평가 / 가격시점 : 2018.11.29)			
목적	지번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당 단가 (공시지가)
토지	1 월암리 62-12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109,000원 (12,600원)
	2 월암리 62-15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68,000원 (10,700원)
	3 월암리 62-16	준보전산지, 개발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74,000원 (7,640원)
감정가	토지 : 19835㎡ (6000.088평)	면적소계	합계 1,712,816,000원

